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28호
7월 22일
2023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제72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개최

차별금지법안 제정 저지 총력

각종 회무처리... 북한의 도발 봉쇄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김병목 목사
예하성 총회장
금산순복음교회 담임

본 교단(총회장 김병목 목사) 제72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7월 8일(목) 오후 1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열려 최근 진행 중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실행위원회에 앞서 드러진 예배는 교단 총무 정진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광주지방회장 김영호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답후 2:1-4 말씀을 본분으로 '그러므로 내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바울은 그 경주를 멈추지 말고 병사와 같이 하되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강한 믿음의 군사가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전임총회장 임용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2부 회의는 총회장 김

병목 목사 주재로 서기 임형순 목사의 회원 점명 후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개회선언, 전회의록 낭독, 총무 보고가 이어졌다.

총무 정진균 목사는 총무보고를 통해 72차 정기총회가 '마음에 합한 자'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열려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코로나 감염병 이후 지난해 10월에 총회 개최된 후 6개월 만에 헌법에 정한 바 대로 5월 총회로 정상적으로 개최되어 임원진 개선 없이 내년 5월 총회까지 유임하기로 한 것과 시모연합회 총회, 부흥사연수 및 세미나, 세계하나님의성회 선교위원회 선교지도자 회의에 선교위원장 심용재 목사 참석, 여교역자국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 제72차 총회 제1회 고시위원회의가 개최되어 2024년도 목사고시 일정을 확정된 것 등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 백영자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조선훈 목사의 지출보고가 있었으며 결의 및 안건 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회명칭 변경 보고,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전출입 청원, 교

역자전출입 청원, 교역자사임 청원, 교역자은퇴 원로 보고, 교회폐쇄 청원, 교역자소전 보고 등의 내용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이어 7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5일간 싱가포르 그랜드 머큐리호텔과 트리니티 교회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하나님의성회 총회장 회의 및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선교대회에 국제총회장 자격으로 심용재 목사가 참석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아울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김상용 목사는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및 한당에배를 조용목 목사를 강사로 하여 오는 8월 15일(화) 오전 11시 대성전에서 드라게 되며, 새성전 건축 이후 적지 않은 부채를 모두 정리하고 온전히 한당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전임총회장 김인찬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회원들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2023년 4월 27일 현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체 검열하고 게시글 삭제, 노출 제한, 경고, 계정 삭제 및 계정 영구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검열 행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인바 폐지하기를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차별금지법 제정저지를 위해 법안이 폐기되도록,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중단 되도록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등을 위해 기도하고, 코로나 감염병이 완전히 종식된 상황이 아닌 만큼 교회 내에서의 세심한 감염병 예방에 더욱 힘쓸 것을 강조했다.

성명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억압하는 규제 검열 행태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2023년 4월 27일 현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체 검열하고 게시글 삭제, 노출 제한, 경고, 계정 삭제 및 계정 영구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검열 행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당장 폐지하기를 바란다.

실정법에서도 혐오 표현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처벌은 고사하고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자율기구인 KISO가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혐오 표현을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나이, 장애, 성별, 성적지향(동성애)이나 종교, 직업, 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자체적으로 혐오 표현을 판단하고 혐오 표현에 대한 조치까지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네이버 및 카카오가 KISO 회원사(네이버, 카카오,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와 13개 기업이 가입으로 있어서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 사유로 교회와 기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다음 블로그에 동성애 비판 글 삭제 혹은 노출 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비판 글, 각종 퀴어 축제에 대한 비판 글들이 삭제조치 또는 노출 제한되고 있다.

종교로 인한 차별금지 사유로 이슬람의 교리에 따라를 정당화하고 있고, 이슬람을 테러 종교라고 비판할 시 종교차별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으로 분류되어 게시글이 삭제되고 노출 제한 조치 및 계정 삭제

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KISO는 5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네이버, 다음 등이 회원사로 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온라인 차별금지법'인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율기구에 불과한 KISO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지하길 바란다. 만약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철회·폐지하지 않으면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

2023년 7월 13일

17개광역시도약법대응본부

이번 성명서를 발표한 17개광역시도약법대응본부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세종,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전북, 전남, 광주, 제주 등의 기독교 연합회들이 함께하고 있다.

프루도초장은
마음의
시냇가

‘건강과 치유를 방해하는 마음의 휘장’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한삼서2절)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였습니 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영혼과 육체와 생활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창문이 닫혀있고 두꺼운 휘장이 드리워져 있으면 광선이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창에 휘장이 드리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휘장이 마음에 드리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라는 생각의 휘장을 제거하려면 그 대상을 응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응시의 원리를 주셨습니다.마 18:15~17, 눅 17:33 교회나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에 대하여 방관하지 말고 적절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온 감정은 배제해야 합니다. 미온 감정을 처리하는 슬기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붙잡혀 여기는 것입니다.

둘째는,시기와 질투의 휘장이 마음에 드리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여 그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치욕이 되게 하였습니다. 시기 질투의 휘장을 마음에서 제거하려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인한 열등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는, 분노의 휘장이 마음에 드리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차별에 대하여 심히 분하게 여기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질책하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처 죽이기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분노는 그것을 더디게 하면 분이 많이 완화되어 적노하지 않게 됩니다. 분노

오래 품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는, 근심과 염려의 휘장이 마음에 드리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염려를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렘전 5:7, 빌 4:67) 염려와 근심이 마음의 창에 드리워져 있으면 마음이 침체하게 됩니다. 마음의 침체는 병균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지게 하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잠 17:22) 하였습니다.

다섯째는, 슬픔의 휘장이 마음에 드리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큰 슬픔을 안겨주는 죽음도 천국과 부활의 소망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슬픔이라도 곧장 걸어 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슬픔을 당한 성도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슬픔의 휘장이 여러분 마음에 드리우거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소망의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신속히 슬픔을 걷어 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두려움의 휘장이 마음에 드리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은 두려움을 제거해줍니다. 두려움이 마음에 드리우거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사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마음, 시기, 분노, 염려, 슬픔, 두려움은 마치 창문을 막아서 동풍과 채광을 막는 두터운 휘장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청결하고 밝게 해주는 활력과 빛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정적 정서가 우리의 건강에 유해한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치유의 능력과 빛으로 채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혜와진리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감당위해 헌신

故 이용주 목사 소천 예하성 총회장(葬)으로 치러

예하성 교단에서 2007년도에 총회장을 역임한 故 이용주 목사가 지난 7월 9일(주일) 오전 7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부향인 천국에 입성했다.

교단 총회장(葬)으로 치러진 故 이용주 목사의 발인 예배는 교단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교단 서기 임형순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답후 4:6-8 말씀을 본분으로 '나게 뿐 아니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감당을 위해 교회와 교단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아오신 故 이용주 목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하나님께서 큰 성령으로 안락추심을 믿고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헤어짐으로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다.

님의 위로를 전했다.

이어 전임총회장 정동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한 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1938년 2월 17일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故 이용주 목사는 육군사관학교 19기로 졸업하여 임관한 후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뒤 총회신학교를 졸업하고 1992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왔다.

故 이용주 목사는 2007년 5월 교단 총회장으로 임명받아 교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후 정책위원으로 남은 평생을 교회와 총회를 위해 헌신했다.

유족으로는 김연자 사모와 아들 이혁, 이은성 딸이은경 며느리와 사위 손주들이 있다.



한기총, 제34-2차 임원회 열어

김노아 목사 제명과 함께 특별위 설치건 의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하 한기총)는 지난 7월 7일(금) 오전 11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34-2차 임원회(긴급)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정서영 대표회장을 대리하여 위임받은 공동회장 김정환 목사가 진행했으며, 참석 21명, 위임 28명으로 성원이 되었고, 개회선언,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 상정 안건은 김노아 목사 처리의 건으로 이대위 위원장 홍계환 목사가 그간 연구했던 김노아 목사에 대해서 보고했고, 김노아 씨를 비성경적 신학사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이단”으로 규정하고, 따라서 이단사상을 가진 김노아 씨를 한기총 회원에서 제명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지난 2022년 2차 실행위원회에서는 이안건에 대해 “이대위에서 조사한 후 임원회에



일임하여 결의”하기로 가결된 바 있으며, 홍계환 목사는 4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김노아 씨의 책자 및 설교 등의 자료로 연구된 이대위 결정을 그대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에 대해서 명예회장 박승주 목사가 설명한 후 교회건물안전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의 사회로, 공동부회장 정장모 목사가 기도하고, 전임대표회장 연기호 목사가 사도행전 3장 1-10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전했다. 회의는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대한민국 목회컨퍼런스-알파세대 선교전략

CTS기독교TV...합동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

CTS기독교TV(회장 김정철)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 목회컨퍼런스 - 알파세대 선교전략>가 7월 25일(화) 오후 7시 유튜브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는 2010년 이후 출생한 세대를 지칭하는 ‘알파세대’를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교육해야 할지 논의한다. MZ세대에 이어 나타난 ‘알파세대’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기를 겪지 못한 제2로인 ‘디지털 네이티브(디지털 원주민)’로, 부모보다 디지털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른 생활 양식과 가치관을 보인다.

사업업으로는 신인류라고도 불리는 알파세대를 분석해 맞춤형 타겟으로 한 여러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한 지 오래다. 한국교회 또한



알파세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육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CTS는 이러한 상황에서 알파세대 신앙 교육의 주체인 교회, 가정, 학교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알파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권순웅 총회

장은 ‘알파세대 교회 교육’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고, 종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함영주 교수가 ‘알파세대 가정 교육’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강연한다. 또한 아깨동무학교 윤은성 교장은 ‘알파세대 학교 교육’,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알파세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회와 이 사회가 알파세대의 특징과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원하며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CTS 기독교 TV 김정철 회장은 “새로운 다음세대인 알파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가정, 교회, 학교가 긴밀하게 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논의를 통해 어떻게 하면 알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여 그들을 믿음의 다음세대로 세울 수 있을지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컨퍼런스 개최 목적을 설명했다.

한원목, 제2대 대표회장 이·취임식

대표회장 강진문 목사, “심부름꾼이 되어 열심히 일하겠다”

한국원로목회자협회는 지난 7월 5일(수) 서울 여의도감리교회(이종춘 목사)에서 제2대 대표회장 이·취임식 및 수요예배를 드렸다. 이날 강진문 목사가 제2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으며, 김재용 목사가 이임했다.

박만석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김종화 목사의 기도, 김일출 목사의 성경봉독, 살롬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사랑의쌀나눔본부 이사장 이선구 목사가 ‘심은대로 거두리라(갈 6:7-8)’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선구 목사는 “주님께서는 ‘자극이 작은 형제 하나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며, “나누고 베푸는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장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라는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형제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병남 목사가 나라와 민족과 원로목사를 위하여”를 주제로 특별기도하고, 국악전양사역자 구순연 집사가 특별찬양했다. 김영성 목사가 봉헌기도한 후, 김재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쳤다.

이어진 2부 대표회장 이·취임식은 이준



영 목사의 사회로 먼저 단체에 예배장소를 제공해 준 여의도감리교회 이종춘 목사와 사랑나눔터 원장 이승원 목사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가 진행됐다.

2대 대표회장 강진문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취임하게 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추대해 주셔서 대표회장으로 서게 됐다”라며, “앞으로 남은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뛰겠다,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 되어 열심히 일하겠다. 많이 기도해달라”라고 밝혔다.

축사도 이어졌다. 축사는 지구촌사랑나눔재단 상임회장 김명현 목사가 전했으며, 김목사는 “하나님은 이름대로 쓰신다”라며 강진문 목사의 이름으로 3행시를 읊었다. 그러면서 “강직하고, 진실된 분이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셨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돼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라고 축복했다.

한편, 2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강진문 목사는 한영대 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총동문회장과 교수를 역임했다. 그밖에도 예장 한영 총회장과 공로목사를 지냈다.

“자신을 불사르는 교회되길”

제15회 한국장로교의 날 대회 개최

‘2023 다시 일어서는 장로교회’ 제15회 한국장로교의 날 대회가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라는 주제로 지난 7월 10일(월)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담임목사 김주용)에서 개최됐으며, 한국의 장로교회들이 한

지리에 모여 “자신을 불사르고 흔적 없이 녹는 교회가 되자”고 다짐했다.

대회장 정서영 목사(한정총 대표회장)는 대회사에서 “탈종교 인구 증가와 교인 수 감소, 가난한 교인의 증가로 인한 마이너스 성



장 시대에 찾아온 팬데믹은,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 왔다. 수많은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 선교지 사역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정 목사는 “한국장로교의 날을 맞아 한국교회의 다수를 점유하는 장로교회가 하나됨으로 반전의 계기와 힘을 모아야 한다. 하나된 한국장로교회가 개혁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새롭게 함으로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길 소망한다”며 “장로교회의 경건하고 충만한 영성을 회복함으로, 예배와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고 공교회성과 교회의 공공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말씀과 무용으로 트라우마와 우울증 극복

순교자의소리, 탈북민 위한 ‘바이블 댄스 테라피’ 시작

한국순교자의소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유성교회학교와 유대제자훈련학교의 탈북민들을 위해 최근 ‘바이블 댄스 테라피’수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사로는 현숙 폴리 대표가 직접 나선다. 현숙 폴리 대표는 “탈북민들은 한국 기독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에서 익숙해진 사회생활이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사회 생활에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러한 이유로 트라우마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이 바로 ‘바이블 댄스 테라피’”라고 말했다.

이어 “진리의 말씀, 북한사람들에게 익숙한 춤을 통해 치유 효과를 일으키는 바이블 댄스 테라피는 북한 사람들이 한국의 성경



역사를 배우고, 무용을 통해 표현하면서, 트라우마와 정신건강 문제를 극복하도록 돕는다”고 소개했다.

바이블 댄스 테라피에는 현재 6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각 학생에게 필요한 개별 레슨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먼저 학생들을 다 모아 놓고 한국 전통 무용의 기본 동작 몇 가지를 가르친 후, 개별적으로 지도하면서 학생들 각자가 자신만의 무용을 창작하여 트라우마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고독사제로 프로젝트 명사특강’ 개최

월드뷰티한즈, 텔런트 최선자 권사 초청 특강...천국소망 당부

(사)월드뷰티한즈(이사장 정현일)와 신한대 K-뷰티소사이터연구소(소장 최애스터)가 지난 7월 12일(수) 엘드림노인대학에서 ‘고독사제로프로젝트 명사특강 발사량전지’를 개최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는 극단 미리암 초대단장인 텔런트 최선자 권사가 함께해 간증을 전했다. 최 권사는 “재상이 주는 화려한 명예와 재물 등이 참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없다. 오직 우리의 생명과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건강하고 한치레 살아가라”고 권면했다.

정현일 이사장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성 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소외와 외로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찾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는 어르신분

들께 합찬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엘드림노인대학합창단과 박형근 찬양사의 특송, 구훈 장로(산생명나무교회 자원봉사단장), 정민혁 사무총장(월드

뷰티한즈KBS연구원), 최세진 영양사와 최세연 사무국장(해돋는미울), 최원희 강사(엘드림노인대학) 등 봉사자들이 사랑의 밥나눔 봉사도 어르신들을 섬겼다.



두그루 아동청소년 상담센터와 협약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지부, 좋은이웃센터 현판 전달식도 가져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지부(지부장 정종환)는 최근 두그루아동청소년상담센터 대표 송명훈과 함께 좋은이웃센터 협약 및 좋은이웃센터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좋은이웃센터’는 지구촌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지후원에 동참하는 굿네이버스 대표 나눔 캠페인으로 후원에 참여하는 센터는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꿈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지부는 심리치료센터를 통해 지역 내 위기가정아동을 발굴하여 심리치료비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두그루아동청소년상담센터도 위기가정의 아동을 연계해 도움을 주고, 해외아동결연을 통한 장기적인 후원에 동참하게 된다.

정종환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지부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에 동참해주신 센터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지역기관과 더욱 협력하여 위기가정아동들을 발굴하고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분포: 02.569.2040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지부.

미혼한부모 가정에 슈퍼우먼 키트 전해

지파운데이션...생계비, 교육비, 물품 등 다양하게 지원 실생활 돕는다



지파운데이션(대표 박종관)이 슈퍼우먼 키트를 제작해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2007가정에 전달했다고 지난 7월 12일(수) 밝혔다.

지파운데이션은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미혼한부모가정이 자녀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비,

교육비, 물품지원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돕고 있다. 작년 기준 저소득미혼한부모 가정 9만 2274명에게 의료, 육아용품, 가전제품 등을 지원했다. 미혼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과 경제적인 부담을 혼자 감당해야 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또한 자녀를 위한 소비가 우선되고, 미혼한부모 자신을 위한 소비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파운데이션은 미혼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슈퍼우먼키트를 기획하게 됐다. 슈퍼우먼키트는 유한양행, 달파, 쿠팡, 허슬리 등 다수의 기업이 물품 기부로 동참했으며, 미혼한부모 가정에게 필요한 생활용품과 영양제, 생리대, 화장품 등으로 구성해 전달했다.

지파운데이션 정은혜 부장은 “미혼한부모 가정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혼한부모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200명의 가정에게 풍성한 키트를 구성해 전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 생명의 말씀 ■



김 상 용 목사

· 예하성 전임총회장
·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 온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50년 전 바로 오늘 일곱 명의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운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오늘날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이며 우주적인 교회로 성장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이며, 성도 여러분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공로롭게도 우리 교회 창립일(1973. 08.16)은 광복절과 대한민국정부수립일 다 음날이어서 기억하기 쉬운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광복절(1945.08.15)은 일본의 36년 식민 통치의 고통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이며, 정부수립일(1948.08.15)은 새로운 국가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는 곧 사탄의 권세

주님의 사명을 따르는 교회

(마 4:23-25)

아래에서 고통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자유롭게 할 것과 새로운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라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8월 16일에 창립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행하신 중요한 사역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료하는 사역인데, 이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같으며 또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1.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1)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행하신 사역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본문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23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며,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뿐만 아니라 지고(至高)한 생활의 표준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2)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의 내용은 같을지 모르나 방법은 다릅니다. 가르치는 것은 어느 장소에 있는 개인이나 무리들을 대상으로 깨우치고 교육하는 것이지만, 전파하는 것은 때와 장소와 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외치며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주님은 유대에서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 땅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후에는 항상 모든 병과 약한 것으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 3분의 2는

바로 치료의 기적인데, 이로 보아 주님은 여러 사역 중에 치료사역에 큰 비중을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셔서 우리를 강건하고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더욱 확고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꾀계를 파멸시키고 어둠 속에 살던 자들을 구원하여 빛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2. 청주중앙순복음교회의 창립과 현재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우리 교회를 창립할 때를 회상하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곱 명의 평신도가 가져온 집 안방에서 창립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웠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가를 개조하여 초막전으로 옮긴 후에 더욱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초라한 성전을 비웃으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성전을 가득 채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제가 만난 전능하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여 환난 당한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부지런히 복음

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은 곧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전하는 성경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어 교회는 날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기도와 열정이 넘치는 성도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차례의 성전건축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2014년 2월에 대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전건축을 병행하고 시기하는 무리들로 인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믿음으로 성전건축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과 정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된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아름답고 거룩한 대성전에서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중부권 최대의 교회로 성장한 우리 교회는 교계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이 교회에 위임하신 사명을 앞으로도 잘 감당해 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주님이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을 열심히 실천할 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함께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위임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앞장서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 정

한동대학교 초·중생 영어캠프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가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박 21일간 초·중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연다고 밝혔다.

금번 여름으로 27회째를 맞는 여름방학 캠프는 2007년 시작한 이래 16년 동안 3800여 명의 참가자를 배출했다. 영어캠프는 오는 7월 14일까지 초등학생 40명, 중학생 40명 선발예정이다.

김영실, 기독교화선교회 사역



기독교화선교회(이사장 김숙희 목사, 상임회장 강형구 목사)는 지난 7월 13일(목) 자녀교육 및 부모교육 사역과 관련

해 김영실 박사를 초대했다. 김영실 박사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유학했으며, 레드랜드대학교와 클레몬트대학원을 졸업했다. 고국에 돌아와서는 총신대학교와 아화여대 평생교육원에서 ‘자녀들의 뇌 발달과 음악의 역할’, ‘유대인 부모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했다.

KWMF 대표에 방도호 선교사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방도호 선교사는 지난 7월 15일(토)부터 대표회장 임기를 시작했다. KWMF 방도호 선교사는 수적·영적으로 세계 2위 선교회국의 역할을 요청받는 한국교회와 이면에

서는 갱신을 요구받고 다음 세대 위기에 처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조영길 변호사, 음란축제 반대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밤파제’가 지난 7월 1일(토)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를 앞둔 6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조영길 변호사는 “전 세계 퀴어축제들의 공통 현상을 보면, 모두 통제 불능의 음란축제가 되었다. 이는 처벌 금지법 제정의 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방도호 선교사는 지난 7월 15일(토)부터 대표회장 임기를 시작했다. KWMF 방도호 선교사는 수적·영적으로 세계 2위 선교회국의 역할을 요청받는 한국교회와 이면에 서는 갱신을 요구받고 다음 세대 위기에 처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는 지켜져야 한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라도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면 지방선거 시에 투표권을 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8세 이상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2022년 기준으로 16만 1,359명이 된다. 그중에 중국인이 81%를 차지하는 13만 1,112명이나 된다. 또 선거인 수도 지난해 기준으로 12만 7,623명이 된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에 한하여 투표권을 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으로 노무현 정부 때다. 그러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하여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없다. 이에 공산권에서는 불가능하며, 미국이나 영국도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고 자칫하면 외국인들이 밀집한 곳에서는 그들이 단결하여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낙선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여당과 법무부에서는 “공직자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진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말, 현행 3년 된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5년 이상으로 늘린다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것을 왜 우리나라에서 굳이 혼란의 무리수를 두면서 시행

할 필요가 있는가? 지방 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인데, 특정 국가 사람이나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동질 때에는 어떤 부정적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특정 국가 사람들이 민의를 왜곡하고 선동한다는 말들도 허다했다. 따라서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그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중국인에 대한 47가지 ‘상호주의’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참정권을 받고 있고(중

국에서는 한·중수교 31년이 지났지만 한국인에 대한 참정권은 없다) 또 건강보험의 본체이다. 현재 중국인 직장 가입자는 숫자에 제한 없이 피부양자로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5년간 중국인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3,07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인은 중국에서 직장을 다녀도 가족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것에 대한 ‘상호주의’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부동산 소유나 이에 따른 금융대출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중국인에게에는 대폭 완화하고,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것도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아예 내국인에게만 엄격한 것을 외

국인에게에는 관대한 것인가?

만약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받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전 정권이 열어놓은 ‘잘못된 혜택’의 문인데, 바로잡아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 ‘상호주의’ 없이 일방적 혜택을 외국인에게 주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런 제도로 인하여 자국민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또 국민들이 낸 세금이 엉뚱하게 새나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하여 하루 속히 시정해 나가기 바란다.

농협중앙회에서 승인한 제품입니다

드림밸런스 닥터 Dream balance Doctor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를 사용하여 위생적인 GMP 시설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 식품



다량의 식이섬유 함유로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음



장내 유산균 증식 및 배변활동 원



세포성장, 생식기능 성숙, 정상적인 면역기능 등 체내 필수적인 무기질



농협중앙회에서 승인한 제품입니다.

NH NongHyup

화개약양농협

(농협중앙회 마크는 중앙회 승인된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목회 다짐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이문근 목사)는 지난 7월 4일(화) 보은순복음교회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연제만 목사(양양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최은성 목사(승리하는교회)의 대표기도, 윤경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윤 목사는 시 92:7-10 말씀을 본문으로 “말보다 더한 말씀의 맛”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끝이 신함과 질함을 예배하는 것을 비롯해 유익한 효과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육간에 전인적인 큰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윤 목사는 끝송이보다 더한 하나님 말씀



의 맛을 우리 목회자가 느끼고 있는지 물으며 목회자로서 말씀을 최우선으로 중요시 여겨야 함을 강조했다.

말씀선교 이후 교단과 지방회의 발전,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이어서 안장규 전도사(후영순복음교회

부교역자) 임명식을 갖고, 직전회장 조재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지방회는 지방회장 이문근 목사의 인도로 모든 보고 사항과 기타 화두처리를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하여 맛있는 식사와 교제 후에 각지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효신 목사)는 지난 7월 11일(화) 밝은빛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7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김미연 목사(열린순복음교회)의 찬양인도 후 지방회 총무 김진현 목사(비전순복음교회)의 사회, 표한자 목사(주말씀교회)의 기도와 김은숙 목사(순복음부흥교회)의 성경봉독, 김진태 목사(선한 열매교회)의 특송, 지방회장 김효신 목사(찬양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행 16:26-32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의능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바울과 실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들린 아이를 고쳐주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벗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며 “이런 기적은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고, 그들에게 예수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당당히 선포했다. 오늘날도 이런 기적의 역사는 오직 기도의 능력이 있다. 우리 지방회가 더욱 기도하며 영적인 충만함을 받아 각자 사역지에서 복음전파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와 개교회와 교역자를 위해 뜨겁게 기도회를 가진 후, 배길선 목사(선석샘물교회)의 헌금 기도와 총무 목사의 광고 후에 전임 지방회

장 박흥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지방회장의 인도로 7월 월례회를 통해 김기인 목사(8명) 건강과 거리 관계로 분리 독립을 위하여 통과시키고, 기타 안건을 은혜롭게 통과시킨 후에, 서성영 목사가 준비한 프로폴리스를 선물로 받았다.

이후 지방회에서 준비한 오찬과 떡과 다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인근 카페에서 앞으로의 일정들을 논의한 후 각지의 목양지로 향했다.

예수사랑교회에서 월례회 갖고 각종 회무 처리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문찬우 목사)는 지난



7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예수사랑교회(담임 예정희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장 문찬우 목사의

사회로 박태균 목사의 찬양인도, 강인덕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 문찬우 목사의 성경봉독, 탁정진 목사의 하 1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탁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정희 목사의 헌금기도, 김장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문찬우 목사의 사회로 총무·서기 박태균 목사의 회원 점명과 총무·서기 보고, 재무·회계 전한배 목사의 재무·회계 보고 후 기타 안건에 대해 토의하고 전임회장 이경진 목사의 폐회 기도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주국제학교 정주중학

하남성 최고의 학교 한국 학생 초청

이후진 이사장, 신앙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인재 육성



정주국제학교는 지난 7월 6일(목) 인천시 부평구 성민 비전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를 소개하며 비전과 꿈을 이뤘길 내일의 주역들을 초청했다.

중국학생 2700명이 재학중이며 국제화를 추구하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반을 운영하며 ACT, IELTS SAT 영어수업으로 국제화를 추구하는 학교 시설, 환경, 교사진 등 하남성과 정주시를 대표하는 초일류 공립학교인 기숙형 학교 정주국제학교 정주중학이 한국 학생 유치에 나섰다. 정주시는 중국 최고의 교육도시로서 한국과 비슷한 기후를 갖고 있으며, 1억2천명의 인구를 가진 하남성의 대표적인 도시다.

1997년 개교하여 25년 된 공립학교로 정주시 최고의 학교로 인정받는 정주국제학교 정주중학은 2019년 6월에 완공된 신현대식 유럽풍 학교 건물에 아름다운 캠퍼스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하남성 최고의 학교로 중국 학생들의 학부모들로부터 최고의 만족도를 보이는 학교가 한국 학생들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

정주국제학교는 신앙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과 배움의 기쁨을 새기고 학문의 즐거움을 이어가며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후진 이사장은 “정주국제학교는 정주중학 내에서 한국부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 거장으로 성장하여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에서 크게 쓰임 받는 밑거름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사장은 이어 “중국은 G2 시대에 미국

과 함께 세계를 이끄는 나라로 부상했다. 대한민국과 가까운 이웃이기에 많은 교류와 협력이 요구되는 나라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라는 소망을 갖고 정주중학과 협력을 맺고 정주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주국제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면 6개월에서 1년의 중국어 입문과정을 통해 언어를 먼저 익히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되면 중국의 현지 학생들과 함께 중국반에 편성되어 수업을 받게 된다.

한 졸업생의 학부모도 “아이가 글로벌시대에 미국과 중국을 선택해야 했다. 그러한 가운데 중국어만 잘해도 된다는 믿음에 중국을 선택했다. 게다가 정주국제학교는 신앙을 잃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고, 10년을 학원을 다녀도 하지 못했던 영어를 3년간의 생활로 중국의 명문대학 영문학과를 진학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며,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었다. 영어권 나라에 비해 비용이 1/3 수준이라는 장점이 있다.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됐다”고 추천했다.

한국 학생들의 중국어 수업이 아니라 중국 현지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을 통해 생생한 중국어 발음과 표현, 실생활 회화 등 뛰어난 언어능력과 함께 효율적인 한·중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오전에는 중국반 수업으로 현지 수업의 장점을 흡수하고, 오후 수업은 유학 생활에게 꼭 필요한 보강수업을 선별해 진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커리큘럼을 편성한다는 것이 정주국제학교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중국의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는 영어공인인증 IELTS

준비를 위한 전문 수업이 마련되어 있으며, 한국 대학(특례, 수시) 입시를 위한 특별 진학관리도 운영되고 있다.

정주국제학교를 졸업하면 정주중학의 졸업장을 받게 되며, 정주시를 대표하는 공립학교인 만큼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도 학력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검정고시가 필요 없이 한국과 중국 등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기자간담회에 함께한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중3 불학기에 보냈다. 글로벌 시대 G2 국가 중에 중국을 선택했다. 중국 복단대 영문학과에 입학할 정도로 영어와 중국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열매로 나타나니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주국제학교는 중등 1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수시입학이 가능하며, 성적우수 장학금과 목회자 및 형제지매 특별장학제도, 장학위원회 장학혜택 등 다양한 장학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중국어 능력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생생한 중국어 발음, 표현, 회화 등 뛰어난 언어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한·중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한국 학생들을 위해 중국의 명문 대학이 요구하는 영어공인인증 IELTS 준비를 위한 전문 수업으로 학생들이 세계적 수준의 영어능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과정도 함께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학생들과 함께하는 문화, 체육, 예술, 발표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중국 문화체험 및 한·중 학생이 함께 교류하는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다채로운 장학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중국 중원에 위치한 하남성은 세계 4대문명 가운데 하나인 황하 문명이 탄생한 곳으로 태항산, 운래산 등 관광과 문화, 역사, 교통의 대표적인 도시이며 중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불리는 한국과 비슷하고 정주와 인연으로 대한항공 직항이 운행되고 있다.

정주국제학교 www.gotzis.com 입학문의 한국 010-2357-3260(대표) 010-4932-2002(지사장) 070-7443-0114 중국 136-7368114(대표) 186-38013570(이수아)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도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쇄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직설형)
-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임팩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리인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면역력 증가)

6)칼슘

(*호르몬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밀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르몬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제작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태국 방콕 인근 4개 지역 교회 방문 현지인 목사 임직식 거행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불교의 나라 태국에 선교의 결실 맺어
엿, 썸, 썸, 판치 4명의 목사 임직
나콘파놈, 씨사켓, 반브아, 논썸분 4지역 목회자로 세워져



배진기 목사
전임총회장
안대옥교회



김병목 목사
총회장
금선순복음교회

본 교단 전임총회장 배진기 목사를 비롯 총회장 김병목 목사는 태국선교사 김학봉 목사와 목양신분 박한근 목사와 태국 방콕 인근의 4개 지역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꿔왔던 현지 교회에 현지인 목사를 세우는 선교일정을 수행했다.

태국선교에서 방콕은 가장 중요한 세계적인 도시이자 태국인의 활력소와도 같은 곳이다. 태국선교를 위해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방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방콕은 태국의 수도이자 제1의 도시로서 정치·경제·문화·교육·외교의 중심지다. 태국에서 가장 큰 강인 짜오프라야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며,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다채로운 관광자원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국제도시다.

방콕은 서울특별시와 2006년 6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도시계획·행정·문화·관광 분야에서 교류를 통해 양 도시의 우호 관계를 증진해 오고 있다.

태국은 인구의 약 90%가 불교도인 불교 국가다. 13세기 첫 타이왕조가 출현할 때부터 불교는 국가의 지배적 종교로서 발전해 왔다. 타이 사회의 중심점에 있는 왕실의 후원을 받아 불교는 엘리트 사회의 이념적 정체성의 바탕을 형성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해 왔다.

이와 같이 불교문화로 가득한 불교의 나라 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지는 1950년대 선교사 두 가정을 필두로 1960년대는 한 가정, 1970년대는 네 가정 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교회가 1970년대까지는 숫자면에서 태국선교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나 파송된 선교사들의 개인적인 능력은 우수한 편이어서 선교사들의 절적인 면에서 태국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한국선교사들은 태국에서 교회개혁에 대한 우호성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생활과 전도에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 한국선교사들이 너무 열심이다 보니 태국인들에게 한국선교사들은 환영을 받았고 태국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기여했다.

본 교단 전임총회장 배진기 목사를 비롯 총회장 김병목 목사는 태국선교사 김학봉 목사와 목양신분 박한근 목사와 함께 지난 6월 25일(주일)부터 7월 1일(토)까지 태국 방콕 인근의 4개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여 현지인 목사를 세우는 귀한 목사임직식을 거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단의 태국선교는 선교사 김학봉 목사를 통해 십 수 년 간 씨앗을 뿌리고 현지인 돌봄 성도를 전도자로 세우고, 목회자로 세우기까지 한국의 포항 안대옥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와 김학봉 선교사의 기도와 눈물과 땀방울, 선교단체와 기관 등 단기선교를 통한 헌신이 모여져 불교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실을 맺어 아직은 미약하지만 4곳의 교회에 태국 현지인 목사를 세우는 역사

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2-3)는 말씀처럼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번 선교 일정 역시 이렇게 어려운 선교의 여정을 되짚어 보듯 강행군으로 시작되었다. 첫날인 6월 26일(월) 새벽에 방콕에 도착한 일행은 잠시 눈을 붙이고는 방콕인근 돈무앙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학봉 선교사 내외와 반가운 만남을 갖고 방콕에서 720Km(11시간 소요)나 되는 나콘파놈으로 향했다.

예상은 했지만 결코 예상대로 거리가 아니었다.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우가 매섭게 차창을 후려치고 지나가기도 하고 이내 곧 개어서 폭염으로 온 몸을 뜨겁게 데우기도 하고, 변화무쌍한 일기변화가 가는 동안 내내 계속되었다.

휴게소에 들러 특유의 향신료와 해산물, 야채 등으로 맛을 낸 태국의 대표 메뉴 동양 쫄면도 식사를 하고는 다시 승합차에 탑승. 가고 또 가고 방콕에서 오전에 출발한 승합차는 저녁 늦은 시간에 도착하여 나콘파놈교회 근처의 숙소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쉬었다가 다음날 첫 임직예배 장소인 나콘파놈교회로 향했다.

한적한 시골의 나콘파놈교회는 태국 성도들이 귀한 임직식을 앞두고 마을 전처가 열렸다. 음식을 준비하여 상을 차려 내는 분주한 손길들과 마을 주민들과 축하객, 성도 등이 잔치집 못지않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김학봉 목사
태국선교사

‘씨앗과 담’ ‘코로칸’

인사말이 오가고 식사를 함께하며 축하하는 분위기가 태국선교 확산에 대한 비전과 꿈을 실현하기엔 큰 동력이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솟아올랐다.

엿, 썸, 썸, 판치 네명의 전도사가 차례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임직을 받게 되는 임직식을 앞두고 모두 설레임과 기대, 책임감 등이 교차하는 듯 보였다.

김학봉 선교사의 사회로 시작된 ‘엿’ 전도사의 목사 임직예배는 ‘썸’ 전도사의 대표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교회 성가대의 찬양, 애하성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틈틈이 6:11-14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십자가의 도를 배워 자기 십자가로 이기는 것”이며 “이 싸움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께서 이미 이기셨고 우리도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 마칠 때에 영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목사로 임직 받는 분의 사명에 대해 강조하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모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되기를 당부했다.

이어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집례로 목사 임직자에 대한 서약, 문답, 목사가운 착의, 임직증서 및 임직패 증정, 성도들의 축하, 포항 안대옥교회 배진기 목사(교단 전임 총회장)의 축사, 목양신분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의 권면, 사회자의 광고, 배진기 목사의 축도로 목사임직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다음날은 380km 거리의 씨사켓으로 이동, 씨사켓교회에서 ‘썸’ 전도사의 목사임직



나콘파놈교회 임직식을 마치고



므영 씨사켓교회 임직식을 마치고



반브아교회 임직식을 마치고



논썸분교회 임직식을 마치고

식이 거행되었으며, 다음날에는 반브아로 이동하여 반브아교회에서 썸 전도사의 목사 임직식이 거행되었으며, 다음날에는 네 번째로 논썸분 지역으로 이동, 논썸분교회에서 ‘판치’ 전도사에 대한 목사임직식이 거행되어 일주일간의 임직예배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금요일 오전 방콕으로 출발하여 저녁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왔다.

이번 선교일정은 장거리 이동과 네 지역의 교회에서 각 교회 이웃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임직식이어서 매우 뜻깊은 일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 지역의 이웃들에게도 깊은 울림이 있는 여정이었음을 감사드린다.

“예수께서 나이와 일러 가리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나콘파놈교회



므영 씨사켓교회



반브아교회



논썸분교회

202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 연합수련회

모시는글

존경하는 교단산하 목사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영혼을 위해 애쓰시며
진리를 위해 교단을 섬기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단 내 중소형교회 및 소규모 청년들을 사역하는
교회들이 지방회 별로 팀을 이루어 연합하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3년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 연합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올림-

주제 :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After God's Own HEART) (행13:20~23)

- 기간 : 2023년 7월 30일(주일) ~ 8월 1일(화) 2박3일간
- 주제 :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After God's Own HEART)(행13:20~23)
- 장소 : 대림벨엘교회 평창수양관(강원도 평창군 마지1길 21-4)
- 대상 : 각 교회 중·고등부·청년부 *예상 인원 : 200명 선착순 모집
- 등록접수 : 2023년 7월 30일(주일) 17시부터
- 회비 : 1인 7만원
*계좌번호 농협 302-0560-9540-41 임형순
- 문의 : 1) 대림벨엘교회 조선남 목사(010-5119-0164)
2) 포천아멘교회 임형순 목사(010-8262-4722)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국

후원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각 지방회, 대림벨엘교회 교육부



조용묵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김병목 목사
교단 총회장
금선순복음교회 담임



김병목 목사
교단 총회장
금선순복음교회 담임



김지연 약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정영진 목사
교단 서기
경림리순복음교회 담임



임형순 목사
교단 서기
순복음아멘교회 담임



조선남 목사
교단 회계·교육국장
대림벨엘교회 담임



오세준 목사
청년국장
순복음참좋은교회 담임

믿음으로 새바람을 일으키는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훔치지 마세요



‘훔친다’는 행위는 어떤 이유든 옳지 않습니다. 신사디워야 합니다. 훔쳐서 무엇을 얻었다고 해도 그의 구겨진 양심은 언제나 그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훔쳐서 얻은 것보다 후에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대학 4학년 학생의 ‘대학생 커닝 부끄러워’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학생은 “커닝을 안 하면 나만 손해 본다”는 생각에서 모두들 커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커닝이 보편화되어 있음은 이제 비밀이 아닙니다. 커닝은 성적을 훔치는 것입니다. 학점을 훔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커닝의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았지만, 부끄러운 A학점보다는 정직한 B학점이 낫습니다. 아니 낙제를 해도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양심의 소리를 덮어두는 부끄러움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귀하다고 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할 때 일입니다. 일전을 앞둔 양측 군대는 매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부장인 파르메니오 장군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지금 이 밤에 기습을 해야 적의 사기를 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알렉산더는 말했습니다. “나는 승리를 훔치지 않겠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고 보자는 식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훔치지 않겠다고 말한 알렉산더의 용기와 대담다운 도량은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 고대사에 등장하는 조조는 한

(漢)나라를 훔쳤다고 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

다. 남의 사랑을 훔치면 안 됩니다. 명예를 훔쳐도 안 됩니다. 권력을 훔쳐도 안 됩니다. 지난 날 소위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훔친적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의 일입니다. 그들은 지금 국민들에게 철저히 정죄당하고 있으며, 역사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의 술수를 이해하는 데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속임수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응용하는데 놀라운 솜씨를 발휘하고 있어 보입니다. 정직한 정치를 보고 싶은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진구로 삼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거짓도 권력을 얻는데 필요한 하나의 처세로 여기는 정치자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진실과 정직함이 최선의 무기임을 알고 있다면 한국교회 연합 단체도 이제 정직을 실천의 장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릇된 세상의 방법을 정치라는 방편으로 알고 행한다면 불꽃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이려니와 권력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훔친 자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속이고 취한 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듯하나 후에는 그의 일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잠 20:17)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기억하라

내가 죄의 종노릇 하던 지난날을 기억하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유일한 힘이었던 때를 기억하라.
너의 그 고백 속에서 내가 일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하면 나의 기쁨이 너를 찾아가리라.
그러하면 나의 평안이 너를 찾아가리라.
그러하면 영원한 안식처가 너의 것이 되리라.
그러하면 승리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고만이 내 맘에 가득하여 주님을 뵈을 수 없다.
내 안의 성령님이 내게 말씀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너는 나의 피조물 한줌의 흙덩이...
언제든지 꺾일 수 있는 포도나무의 연한가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초장의 어린 양.
신랑 앞에서만 꽃이 되는 신부임을 기억하라.

선한 일을 위해 구별해 낸 지를 기억하라.
성경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을 기억하라.
너를 도와 일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라.
죄의 속임수를 피하라 피하라 피하라!

사설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정치가 썩어 교육과 종교마저 타락한 나라는 반드시 망했다. 역사가 증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교육과 종교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정부가 깨겠다고 개혁을 서두르며 그동안의 이권 카르텔을 조사 중에 있다.

임시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등골을 빼먹는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겠다는 것이다. 잘하는 일 아닌가. 칼라문화왕을 앞세워 부모들을 가지고 논 것이다.

4년제 대학총장 10명중 8명이 칼라문화왕을 배제해도 변별력 구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신부라는 성직자가 주문을 외우듯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대통령과 그 일행이 탄 비행기가 하늘에서 추락하기를 바란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해서 신부직을 정직 내지는 박탈당하기도 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미운털 박한 대통령 내외만 죽나?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수행원들(장관, 비서관, 보좌관, 경호원들, 기자들)은 비행기가 추락해도 살고? 도를 넘은 사고들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고 해도 자신과 무슨 원한 관계인데,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이다.

사회 지도층의 부패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공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면 여기는 사회는 망하는 나라다. 성직 박탈 이후에도 끊임없이 저주성 글을 올렸는데 왜 그런 사람들의 글이 화제가 되는지 모를 일이다. 함께 썩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14년간 갇혀 있던 루마니아의 리처드 뎀브르트 목사가 쓴 ‘하나님의 지하 운동’에 보면 루마니아에 진주한 소련 군인들에게 전도한 장면도 나온다. 다 같은 성직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일탈한 성직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냐가 판단의 기준이다.

이재명 당 대표는 성남 우리교회(합동 성남교회)의 집사라고 했다가 교회측에서 이재명 씨는 우리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된 적이 없다’고 하자, 돈도 보도 못한 해명을 했다. 자신은 집사가 아니라 ‘준집사’였다고... 기독교 역사상 ‘준집사’라는 직책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때 상당

수 사람들이, ‘준집사’였네.라고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을 때는 아연실색을 하고 말았다. 거짓말을 숨 쉬듯 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온다. 이 나라는 무슨 거짓말이든 통하는 나라가 된 것 같다. 기가막혔다.

사회화자들은 지구상에 3명의 스트롱맨(strong man)이 있다고 했다.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이다. 이들은 일명 3대 빌런(악당)이라고도 말한다. 푸틴은 2000년 3월 대통령에 오른 후 지금까지 23년간 군림하고 있다. 시진핑은 한 때 중국 공산당에 쫓겨 7년간의 토굴 생활도 한 그였지만, 정권을 잡고 난 이후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김정은의 임기는 종신이다. 죽을 때까지 막강 권력자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스트롱맨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의원을 말하는 것이다.

의전 서열 8위이지만 그 이상의 권세를 부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의 하락 없이는 단 한건의 법안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가 무슨 거짓말과 허위성 발언을 해도 누구도 따져볼 생각도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의 의원들을 빼면(이성민, 조웅천, 김혜영) 그 앞에서 벌벌 떨며 눈도장 찍기에 바쁘다는 것이다. 공천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스트롱맨의 특징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정쟁 속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민생과 상관없는 엄청난 국가사업에 예산을 탕진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스트롱맨들의 마지막은 별로 좋지 않다는 게 학자들의 의견이다. 인민들은 굶주림으로 죽어나가는 데 북한의 스트롱맨은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아댄다. 최근에도 한 발을 쏘았다. 한 대를 쏘면 가격이 얼마인데...

그의 마지막은 무엇일까? 중국 진나라의 스트롱맨인 상상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사지가 찢겨 죽었는데, 역사는 흐른다. 두고 볼 일이다. 현재가 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말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와 심정을 살펴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렘 17:9,10) 행위대로 갖는 하나님의 법치가 통용되는 평등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스포츠 선교회 걷기동우회 모임안내

☘일시 : 2023년 8월 21일(월)~22일(화)

☘장소 : 순복음갈릴리교회(부산)

☘대상 : 예하성 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목회자로서 교단을 사랑하고 교단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문의 : 정영진 목사 010-3590-3156

*예약을 위하여 참석여부를 신청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일 11시30분 : 예배 및 기도회
13시00분 : 점심식사
14시00분 :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산의 아름다움
16시00분 : 이기대 공원 걷기
18시00분 : 저녁식사
19시30분 : 송정해수욕장 산책
21시00분 : 숙소에서 기도회 / 취침
- 22일 07시00분 : 아침 기도회
08시30분 : 아침식사
10시00분 : 황령산 걷기 / 송도 케이블카
12시00분 : 식사 후 건강하게 목회 현장으로



교회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 2만명 넘어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이하 출대본)와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교회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 참여함으로써 그 열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현재 출대본은 종교기관이 저출생 극복의 필수조건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출대본 측은 "교회를 포함한 전국 종교기관의 유류 공간을 활용한다면 각 가정과 일터 인근에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돌봄센터가 구축될 것"이라며 "법개정 추진을 통해 종교시설을 주중에는 디유세대를 위한 돌봄센터로 활용하고 주일 등 종교일에는 상황에 맞게 종교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대본과 CTS는 '0-3세 영유아 보육시설 하기의 경우 복수 용도에 대해 같은 시설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제 19조 3항' 신설의 입법 청원을 내걸고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서명에 참여한 안양석수교회 강일성 장로는 "교회 공간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며 "이번 서명을 통해 교회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맑은샘광전교회 남궁영순 권사는 "아이 키우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일반 기관보다 교회가 나서서 아이들을 돌본다면 더욱安心이 될 것"이라며 "교회가 아동 돌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운동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교회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전국에서 본격화되면서 광림교회, 사랑의교회 등 주요 대형교회는 물론 부산, 울산 등 전국 교회와 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7월 11일 현재 21,672명이 서명한 상태로 알려졌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 변창배 본부장은 "영유아 보

주중에는 돌봄 · 주일에는 예배

교회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육시설의 조건이 건축법상 지나치게 까다롭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교회 인근의 영유아가 있는 어머니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실제적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 내 영유아 돌봄은 물론 교회의 지역 전도에 새로운 장이 열릴 기 대하며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함주어 말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0세에서 3세까지의 영유아 돌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과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주목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국 각 마을에 고루 분포된 종교기관들이 나서 영유아를 돌보다면 국민들의 육아 고충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에서는 종교시설 내에 영유아 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국가적 위기 인구문제 해소에 종교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입법청원 서명운동 양식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https://www.happyborn.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서명운동 페이지(https://www.happyborn.kr/form/write/709)를 통해서도 온라인과 모바일로 동참할 수 있다.

“웰다잉은 장기기증 희망등록부터”

장기기증운동본부, 시립강북·노원 노인종합복지관과 협약

(제)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7월 8일(월)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및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과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김시재 관장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살다가 생명나눔이라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박지은 관장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웰다잉에 대한 어르신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그 관심이 생명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했다.

두 기관은 고령층의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생명나눔 운동에 앞장서 왔다. 먼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5월 4일 어버이날 행사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해 63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했다.

이날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복지관 이용시민은 "그동안 장기기증에 관심이 있어도 방법을 알지 못해 참여를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오랜



바람을 실천하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역시 6월 14일 장기기증 설명회를 진행해 16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은 과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죽음 준비 교육을 통해 일찍이 장기기증의 소중한 가치를 알려온 바 있다.

한편, 65세 이상의 전국 고령인구 비율은 2022년

18%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 역시 지난해 17.6%로 고령인구가 많은 만큼 장기기증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설명회나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협약을 통해 본부와 두 복지관은 향후 웰다잉 강연에서 장기기증 설명회를 진행하며 지역 내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석웅 총회장 황덕형 총장 취임축하

서울신대 총동문회장 “주님의 영광 위해 균형 있는 사역하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임석웅 목사와 교단 총무 문창국 목사,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의 취임 축하예배가 6월 26일(월) 개최됐다.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회장 구교환 목사) 주관으로 드린 이날 예배에는 총동문회 임원들을 비롯해 6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교단 발전과 화합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장 임석웅 목사는 "총회장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맡겨진 직임과 교단 안의 여러 문제들을 법과 질서를 따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창국 총무는 "주어진 임기 동안 행정 전산화, 교단 역사자료 정리 등 계획한 일들을 성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덕형 총장은 "성경학

교로 시작한 서울신대가 오늘날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기도와 성원을 부탁했다. 이날 축하예배는 수석부회장 주기철 목사의 집례로 부회장 윤학희 목사의 기도, 서기 임석호 목사의 성경봉독, 총동문회장 구교환 목사의 설교, 직전회장 이종래 목사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야행성 폭우 가운데도 전도!

전국적으로 야행성폭우가 쏟아져 밤사이 불꽃탄으로 침수되고 호우감타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시기에도 쉬지 않고 복음전도! 가족세트전도는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경상도, 전라도, 인천, 의성, 천안 등 빗속을 헤쳐며 어디든 달려가서 노인 회관에서 어르신들까지 전도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가족세트 대표총재 박영수 목사의 기도 몇 달 전만 해도 냉담한 태도를 보였는데 지난달부터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달에는 자와와 커피 등 대접까지 받아가며 영접기도를 통해 영혼구원에 질주했다.

끊임없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특별히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해서 각 기관과 연대해서 저들의 필요한 부분을 끌어주는 노매실 사관들의 헌신 봉사가 있었기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런 바탕 위에 복음을 심었더니 더욱 효과가 크게 나타났던 것이다.

지난주는 세군데 회관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구세군 노매실 이야기는 참 아름답다. 주님 보내신 천사 아꼈 골짜기라도 가겠나이다. 호랑불이 켜지는 곳이라도 가겠나이다. 안울한 곳이라도 가겠나이다.

그에 대한 실천을 몸소 행하는 사랑의 사도들이다. 한 생명이라도 구원코자 헌신의 노고를 다한다.

의성 노매실 구세군교회 두 사관은 이 마을, 저 마을, 노인회관을 찾아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사마리아인이다.

많은 교회가 노매실 구세군을 달아야 한다.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가족세트가 가는 곳마다 구령의 열기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가족세트전도 본부장 이수 교수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대표총재

문화선교TV방송대부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692-1691, 0103730-2573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문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전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울면 금율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여호와와 기(旗)를 세우라!"(출17:15)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창립50주년기념 및 헌당감사예배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교단 정책위원장



김상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2023년 8월 15일(화) 오전 11시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대성전

